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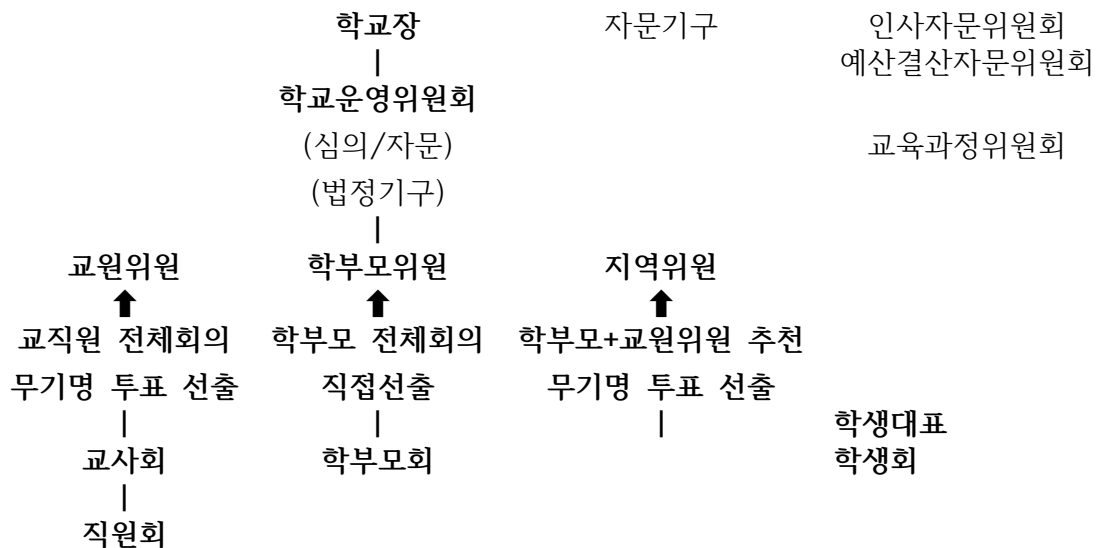
제 4부 교육자치와 참여

12. 학교를 움직이는 학교자치

- 학교자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자치를 위한 참여 기구

[단위학교 의사결정 참여 구조 및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및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 1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사항	국·공립학교(심의)	사립학교(자문)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학교 운동부 구성 ·운영	국·공립학교와 동일
학교행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에 관한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은 학교 법인의 요청 시 자문 공모교장 및 초빙교원은 제외
학부모부담 경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학교교육의 지원자에서 참여자로

14. 마을교육공동체는 꼭 필요한가

로컬택트가 미래다

-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뉴노멀(new normal)을 가져오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untact)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등교와 원격수업,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주문 등의 폭증 등이 그사례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상회의 이면은 재택근무이며 가족간의 정서적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과 배달의 폭증과 함께 소비패턴도 변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 낯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동네의 잘 아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졌다. 코로나 19는 가족과 마을, 그리고 지역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

- 교육과 관련해서도 극단적인 비대면 학습을 극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학습 소모임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관계망 복원을 통한 일상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을의 연대망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역과 배움의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대면수업과 원격학습은 그 질적 차이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교육 전체를 더 풍부하게 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 일찍이 세계화의 대응은 지역화였다. 그리고 코로나 19는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제 학교교육도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며 상생과 공존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와 마을이 만나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심화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뉴노멀은 언택트가 아니라 로컬택트(localtact, 마을관계망)로의 승화를 시사하고 있다.